

2023. 4. 24.(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4월 23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 자료

담당부서 : 도시교통실 미래첨단교통과

미래첨단교통과장	이수진	2133-4950
미래첨단교통팀장	최영순	2133-4952
담당자	임채영	2133-4959
관련 누리집	<a href="http://topis.seoul.go.kr">http://topis.seoul.go.kr</a>	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: 5쪽

### 서울시 '22년 대중교통 이용 1년 만에 33억건 증가..일상시간대 이동 최대 14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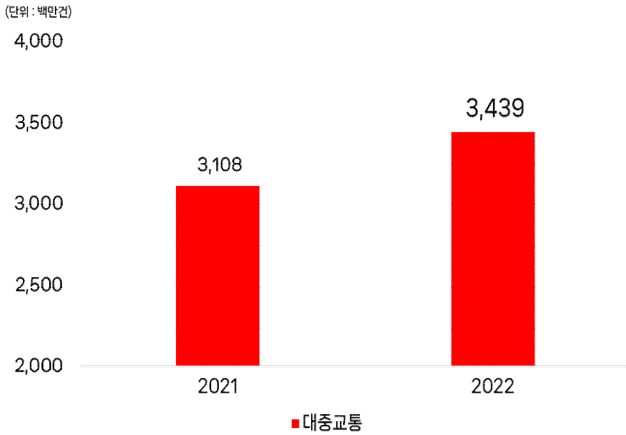
- 서울시, '22년 대중교통 이용현황 분석... '21년 대비 일상시간대 최대 7만건(14%) 증가
- 버스 9% · 지하철 12% 이용건수↑...**마스크 전면해제** '22.9월 지하철 이용객 26%까지 상승
-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특성·평균 1.23회 환승·하루 최대 58회 이용하기도
- 시, 과학적 빅데이터 기반 교통정책 실현...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마련

- 2022년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, 연간 총 이용건수는 34억건, 일평균 이용건수는 942만건인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'21년 대비 총 이용건수 3.3억건·일평균 약 90만건이 증가한 것으로, 일상 시간대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이동도 활발해진 것으로 분석된다.
- 서울시는 '21년과 '22년 약 6,400억건의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해 “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현황”을 분석했다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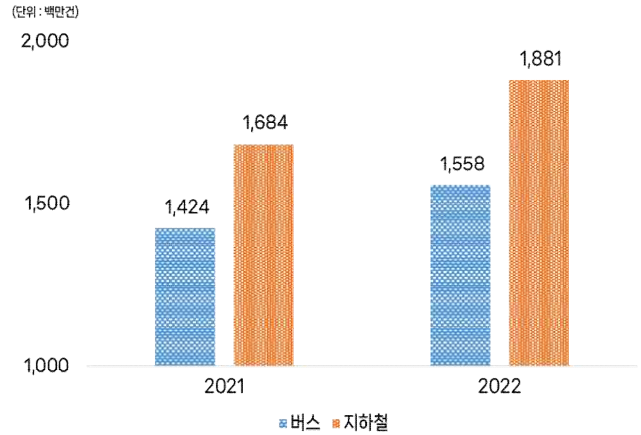
○ 자료수집 범위 ※ 2021 ~ 2022년도  
 (지하철, 버스)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대중교통의 교통카드 승하차 실적

〈2022년 대중교통 이용건수 일평균 942만건·일상시간대 일평균 이용건수 최대 7만건(14%) 증가〉

□ '22년 대중교통 이용건수는 '21년 대비 총 이용건수 3.3억건, 일평균 이용건수 90만건이 증가(11%)한 것으로 나타났다.



〈연도별 대중교통 총 이용건수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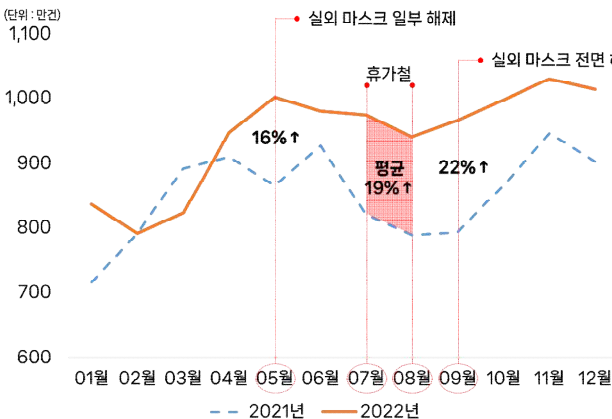


〈연도별 버스&지하철 총 이용건수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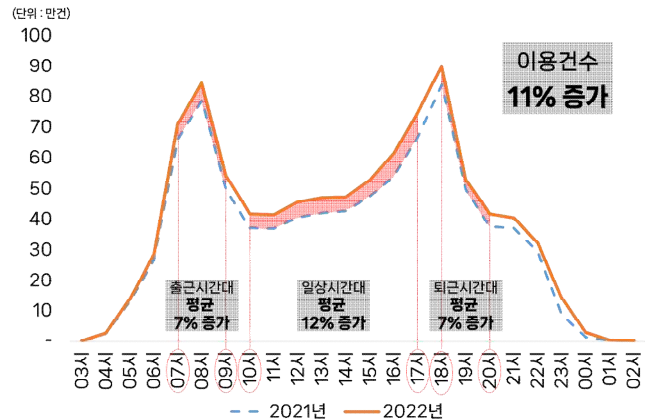
□ 월별 대중교통 일평균 이용건수를 살펴보면, 실외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발표가 있었던 5월(16%)과 9월(22%)에는 평균보다 높은 증가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시간대별 대중교통 일평균 이용건수를 살펴보면, 일상 회복에 따라 일상시간대 (10시~17시) 대중교통 이용 증가폭이 평균 12%로 출·퇴근시간대(평균 7%)보다 높은 증가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.

○ 16시는 '21년 대비 일평균 이용건수가 약 7.5만건이 증가(14%)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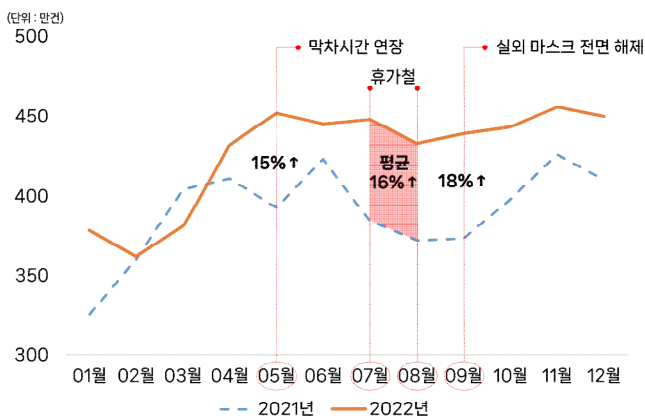
〈월별 대중교통 일평균 이용건수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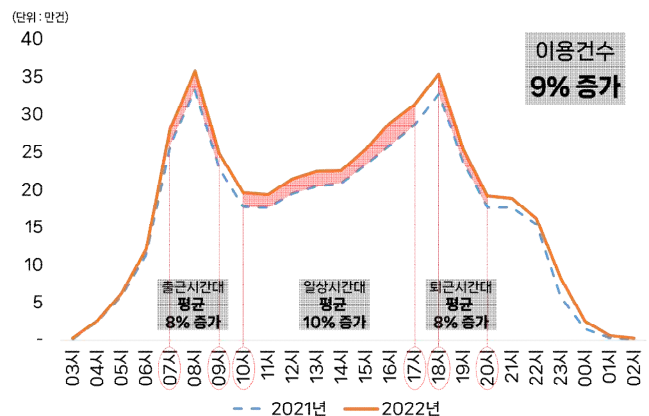
〈시간대별 대중교통 일평균 이용건수〉

<서울 버스 이용건 1년만에 1.3억건 증가…심야시간대 이용객도 증가세>

- '22년 서울버스 총 이용건수는 약 15억건으로 '21년 대비 약 1.3억건 증가(9%)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일평균 이용건수도 427만건으로 '21년 대비 37만건이 증가(9%)했다.
  - '21년 대비 총 이용건수는 시내버스 1.2억건, 마을버스 888만건 증가했다.
- 특히 마스크 의무 착용 전면 해제 발표가 있던 9월(18%)에는 평균보다 높은 증가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.
  - 9월 시내버스 이용건수는 20%, 마을버스 이용건수는 9% 증가하였다.
- 일상 회복에 따라 일상시간대(10시~17시) 서울버스 이용 증가폭은 평균 10%로 출·퇴근시간대(평균 8%)보다 높은 증가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.
  - 특히, 16시는 '21년 대비 일평균 이용건수가 약 2.9만건이 증가(11%)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.
- '22년 막차시간 연장 및 심야버스 확대 운영으로 심야시간대(23시~03시) 서울버스 이용건수는 '21년 7.8만건에서 '22년 11.7만건으로, 올빼미버스 이용도 활발히 이뤄지며 심야 이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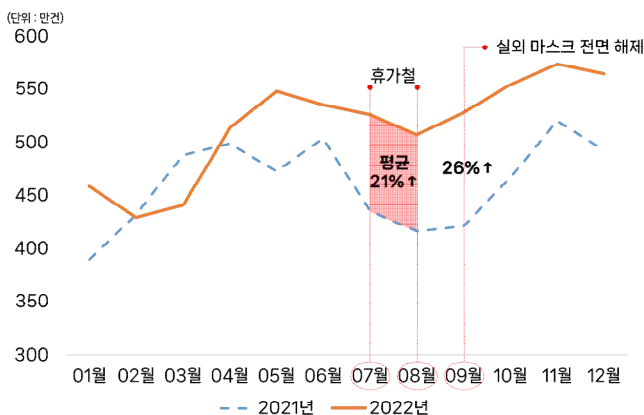
<월별 서울버스 일평균 이용건수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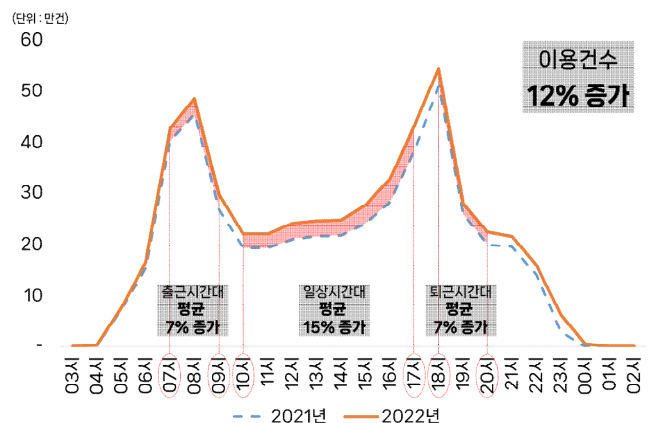
<시간대별 서울버스 일평균 이용건수>

<서울시민의 발 “서울 지하철”…사회적 거리두기 규제 해제로 심야통행 2.3배 증가>

- '22년 지하철 총 이용건수는 약 19억건으로 '21년 대비 2억건 증가(12%)했다. 이는 버스(9%) 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다.
- '22년 지하철 일평균 이용건수는 515만건으로 '21년 대비 54만건이 증가(12%)하였으며,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전면 해제 발표가 있던 9월(26%)에는 평균보다 높은 증가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.
  - 3년 만에 마스크 없는 휴가철(7월, 8월)에는 21%의 증가폭을 보였다.
- 일상 회복에 따라 일상시간대(10시~17시) 지하철 이용 증가폭은 평균 15%로 출·퇴근시간대(평균 7%)보다 높은 증가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.
  - 특히, 16시는 '21년 대비 일평균 이용건수가 약 4.5만건이 증가(16%)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.
- 영업시간제한 등의 규제 해제 및 막차시간 연장실시로 심야시간대(23시~03시)의 지하철 이용건수가 '21년 2.9만건에서 '22년 6.7만건으로 약 2.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

<월별 지하철 일평균 이용건수>



<시간대별 지하철 일평균 이용건수>

<서울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특성 분석…평균 1.23회 환승·최대 58회 환승하기도>

- 서울시민들은 대중교통 1회 이용 시 평균적으로 1.23회 환승하며, ▲버스 3.3km·13분 ▲지하철 13.8km·36분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
-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기록을 분석 결과, ▲최대 58회 이용 ▲ 최장 132km 이동 ▲최대 7시간 이동하는 등 다양하게 이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.
  - (최다 이용횟수) A씨는 8시부터 20시까지 대중교통을 총 58회 이용
  - (최장 이동거리) B씨는 관악구 행운동에서 출발하여 군포, 동작구, 성남시, 강남구를 거쳐 관악구 청룡동으로 총 4번 환승. 132km 이동
  - (최장 이동시간) C씨는 성북구 장위동을 출발하여 동대문구, 성남시, 영등포구, 일산시를 거쳐 서대문구 신촌동으로 총 4번 환승. 7시간 이동
-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이동 거리는 근거리 통행(10km 이하)이 과반수 이상이었으며, 20km 초과 통행은 15.3%로 분석되었다.
  - 10km 이하(57.6%) > 10~20km(27.0%) > 20km 초과(15.3%)
- 대중교통 이용자 유형은 일반(81.6%)>경로(10.4%)>청소년(4.1%)>어린이(1.9%)>장애인(1.7%)으로 분석되었다.
- 한편, 시는 교통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▲대중교통 통행 분석 ▲자동차 등록 현황 ▲차량 통행속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.
-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“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등 시민들의 일상이 정상화되는 만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통 정책이 필요한 시점”이라며 “서울시는 앞으로도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 분석을 통해 이용현황을 파악하고,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